

눈꽃 핀 명상과 치유의 도량... 지친 삶에 심포



일주문 들어가는 길에 열병하듯 서있는 벚나무, 은사시나무, 굴참나무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백설은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겨울 정취를 한껏 더 돋워준다.

눈길이 아름다운 산사 - ③ 익산 송림사

눈덮인 익산 함락산 송림사를 찾아가는 길은 마치 오래전에 떠난 고향집을 다시 찾아가는 듯 설렘과 편안한 마음이 든다. 해탈교 건너 700m 남짓 양옆으로 도열한 듯 서있는 벚나무, 은사시 나무, 굴참나무 사이를 걷노라면 눈꽃나무 사이로 송림사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제일 먼저 일주문이 보이고 눈보자를 쓰고 고개속인 대나무들이 순례객을 반겨준다. 들어가는 입구의 눈길이 참 곱다. 고즈넉한 절 송림사의 매력이다.

송림사 절이름이 참 재밌다. 달마대사가 중국 송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수행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송산(崇山)의 송(崇)과 소림사(少林寺)의 림(林)자를 따서 송림사라 했다고 한다.

송림사는 신라 경덕왕(742~764)대 진표율사에 의해서 창건됐다. '익산지'에 의하면 고려 충목왕 원년(1345년)인 을유년에 행여(行如)선사가 중건했다는 기록도 있다. 송림사에 보광종인 명문기와 주변에 전해지는 전설 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최소 고려 1345년에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익산구지(益山舊誌)는 송림사 보광전을 고려 충목왕 원년(1345년)에 행여선사가 선종(禪宗)사찰로 창건하고 기와를 조성했다는 명문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송림사가 위치한 옹포는 과거에 서해바다서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육지와 바닷길을 연결하는 경제적, 군사적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드넓은 호남평야를 침탈하

려는 왜구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던 곳이다. 삼국시대 때는 당나라 소정방이 이곳 금강을 통해 백제 수도인 공주와 부여로 향하는 진격로로 활용했다. 또한 고려 때는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 왜구 침략을 물리친 진포대첩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 침략에 맞서 싸운 뇌목 처영대사가 의승병을 이곳 송림사에 집결시켰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이 때문에 송림사는 항상 왜구들의 집중공격 대상이었다.

달마대사 수행처 송산 소림사에서 이름 유래 임진·정유재란 당시 의승병 지휘소 역할 보광전 속 '또 하나의 단 집'...조각미 화려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송림사는 선조 25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전각들이 모두 소실됐으나 보광전만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그 이후 송림사는 10년 만인 광해군 5년(1613)에서야 겨우 우화루(雨花樓)를 중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남아 있는 송림사 전각으로는 주전각인 보광전 외에 우화루·정혜원·영원전·나한전·나한전·적묵당·안심당 등이 있다. 우화루는 보광전으로 진입하는 정문으로, 송림사의 중심 전면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집으로 <우화루중수기>에 의하면 통일신

라시대 석덕 스님이 창건한 후 1819, 1855, 1964, 1992년에 각각 중건됐다. 삼면의 벽에는 송림사 역사를 알 수 있는 송림사법당중수기를 비롯해 12기의 현판이 걸려 있다. 그 외에도 정교한 조각미가 잘 어우러져 정감을 주는 목어(木漁)와 길이 3.56m, 높이 70cm인 목구시 하나가 있다

이외에도 송림사에는 성보 문화재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광전 석가보니불 좌상(전북유형문화재 188호)과 영원전 지방보살 및 권속(전북유형문화재 189호), 나한전 16나한상(전북유형문화재 219호), 청동은입인동문항로(전북유형문화재 67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절 한편에는 유구한 역사를 후세에 알려주는 고승 부도들도 송림사를 지켜주고 있다.

익산 송림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쪽 벽화위 화려한 단집이 돋보이는 보광전 내부

주지 스님이 추천하는 이것만은 클릭

“보광전 단집 아름다움 만끽하길”



주지 지광 스님

송림사 주지 지광스님은 불자들에게 보광전 안쪽의 단집과 진채로 그려진 벽화만을 꼭 보고 갈 것을 추천한다. “보통 관람객들이 부처님께 참배만 하고 돌아 나오는데 고개를 들어 한번 올려다 보세요. 단집과 용조각, 진채로 그려진 벽화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보는 이들마다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조각 기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배지붕 형식의 보광전(보물 825호) 내부에는

용과 구름, 극락조가 조각된 아름다운 단집이 있다. 건물 안쪽은 보 끝에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고, 기둥 윗부분에는 연꽃, 용의 몸, 극락조가 화려한 모양으로 장식돼 있다. 화려하지 않고 단아한 외부 장식과는 달리, 보광전 내부 장식은 화려함이 돋보인다.

“목조각 예술의 극치를 상징하는 단집은 연꽃과 구름 용 등이 서로가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 퇴색한 단정 색이 오히려 단집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켜 주지요. 특히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를 감상해 보세요. 다른 절에서 느낄 수 없는 벽화의 진수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송림사 '방학차 템플스테이' 인기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지정 4년째를 맞고 있는 송림사 방학차 템플스테이는 3년간 4,0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방학중 열리는 청소년 인성교육템플스테이는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참가학생을 제한해야 할 정도다. 또 원광대에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

템플스테이와 동남아 출신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여성 대상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불교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최장수 마을로 유명한 송천마을 불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와 예로부터 용왕제로 유명한 옹포곰개나무 해마다 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는 지역축제와 효과적으로 연계한 템플스테이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063)862-6396

여행수첩

<주변 볼거리>

· **미륵사지 석탑** / 백제 무왕대 건립된 한국 최초의 석탑으로 현존하고 있는 국내 최고, 최대이며, 석조건축술 역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해체과정에서-금제사리호와 연주, 유리구슬류 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금제사리호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백미로 꼽힌다. 3월 31일까지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전이 열리고 있다.

· **최북단 녹차 자생지** / 대한민국에서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있다. 해마다 가을이면 국제 차문화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 **옹포곰개나무** / 서해낙조 5경지 가운데 한 곳이다. 오래전부터 방생지로 유명한 용궁사터이다. 덕양정에 올라 내려다 보는 금강은 마치 곰이 새끼를 품은 듯하고, 금강 하류지역으로 겨울 철새의 군무와 어우러져 해가 갈수록 가라앉는 모습은 장관을 연출한다. 곰개나무에서 유람선이 운행된다. (대인 8천원 소인 5천원)

· **신성리 갈대밭** / 서천군과 군산시가 만나는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는 갈대밭으로, 너비 200m,

길이 1.5km, 면적 10만여 평이 넘을 정도로 규모다. 옛날 곰개나무터(진포)라고 불렀던 곳으로,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는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대 7선에 속한다. 각종 교육기관의 자연학습장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교통편>

대중교통 / 익산시내에서는 합영을 거쳐 송림사 앞을 지나는 42, 47, 36, 35-1번 시내버스가 약 3시간 간격으로 있다. 송림사 가는 길은 옹포행 버스를 이용해 송림사 앞에 하차하거나, 옹포파출소에서 내려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려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승용차편 /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군산 IC에서 724번 지방도를 따라 나포로 진입하는 길이 빠르고 찾기도 쉽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IC에서 좌회전하여 724번 지방도를 따라 나포로 진입하는 길이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IC에서 좌회전하여 23번 경강방면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그 곳에서 다시 711번 용안방면 지방도로 진입하면 송림사 표지판이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우회전하여 722번 익산·금마미륵사지를 거쳐 724번 도로를 따라 오면 된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역중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쭙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니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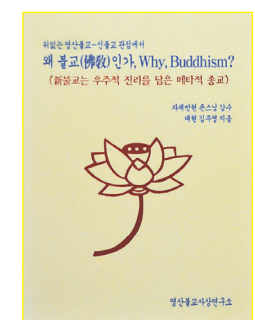
아미타부처님 재일행사: 매월 음력 5일, 오전 9시 30분
영산불교 현지사 대전분원 전화 042)525-5325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팩스 042)525-5035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왜 불교인가

대현 김주영 저 (672쪽, 가격 20,000원)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안정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작이다.

* 현지사에서 구입하시거나 운주사 및 교보문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